대표프로그램 개요서 및 시나리오 작성 양식

[프로그램 개요]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당일)



운영장소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 불국사경내
참가대상 학생 및 일반인 (제한 없음)
운영시간 3월~11월, 매일 10시,14시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인터넷예약 및 전화문의 (054-778-4100)

환경부 인증 제2018-120호

겨울, 그리고 봄

경주국립공원 속 전통사찰 불국사를 만나볼까요?

경주국립공원의 당일형 대표 탐방프로그램입니다.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에 있는 신라시대의 절 불국사는 1995년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록 된 국립공원 속의 전통사찰입니다. 불국사 창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불국사에 대해 배우고, 불국사 경내에 자연생태계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여름

불국사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들

불국사 경내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불국사에 숨어 있는 연꽃을 찾아본 후 연꽃의 특징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함께 신라시대 때를 상상해보며 그때의 신라인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

도토리는 줍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둡시다!

참나무류에 열리는 도토리는 겨울을 나는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먹이자원입니다. 도토리 굴리기를 통해 다람쥐 등의 동물에게 안전하게 도토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놀이로 배워 봅니다.

대표프로그램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활동장소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학생 및 일반인
참가인원	최대 20명/해설사

활동목표	• 유네스코에 등록 된 우리 민족의 유산 불국사를 통하여 신라인의 지혜를 알게 되고 불국사의 자연생태계를 보고 느끼면서 배웁니다. • 자원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가치와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준비물	• 역사자료 사진, 마이크, 종이, 색연필, 씨앗모형종이, 생태밧줄
유의사항	•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관람합니다. • 음식물을 가지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 국립공원 및 경주국립공원 알아보기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 **나무이야기** – 매화나무, 개나리 – 소나무 형제(적송, 백송, 잣나무) • **불국사의 이야기** – 불국사 창건 배경 – 불국사의 가람배치 – 불국사의 국보 및 보물 • **불국사 전각과 불상** – 대웅전, 비로전, 극락전 • **불국사 경내의 야생동물** – 다람쥐와 청서의 차이점 • **생태놀이를 통한 가치 및 중요성 인식** – 단풍나무 씨앗 – 멧돼지와 사냥꾼 놀이 – 생태밧줄 놀이	6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소감 발표 및 의견 나누기** • **주변 정리**	10분

시나리오

나무 이야기(1)

매화나무

이른 봄 잎눈이 움직이기 전에 꽃이 피는데 지난해에 잎이 붙어 있던 자리에서 1~2송이씩 거의 가지에 들러붙은 상태로 핍니다. 꽃은 5장의 둥근 꽃잎으로 이루어지며 흰빛 또는 분홍빛으로 핍니다. 꽃이 피면 강한 향기를 풍겨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꽃이 지고 난 뒤에는 둥근 열매인 매실이 노랗게 물듭니다.

개나리

♪나리 나리 개나리~♬ 여러분, 제가 지금 부른 노래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 꽃인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튀밥 같다고 해서 튀밥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황금 종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골든벨"이라고 부릅니다. 봄의 샛노란꽃을 피우는 개나리는 줄기가 곧게 자라다가 가지 끝이 축 쳐지고, 꽃이 지기 시작하면 잎이 삐죽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답니다.
혹시 개나리 열매를 본 적 있나요? 개나리는 토질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며, 생명력이 강하여 가지가 땅에 닿기만 해도 곧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따로 열매를 잘 맺지 않습니다. 개나리 나름대로의 후손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지요. 개나리를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닌 영춘화(迎春花)라 이름 지어 부릅니다.
따사로운 봄볕아래 담벼락을 노랗게 물들이는 개나리는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꽃이기도 하는데, 꽃말은 희망입니다



소나무 형제

여러분이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와 다르게 이 나무는 소나무처럼 생겼지만 수피가 백색을 띄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소나무과인 '백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는 줄기 껍질의 빛깔이 붉습니다. 그래서 '적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비슷한 소나무 형제들이 있습니다. 잣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비교할 때는 바늘잎의 갯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뾰족한 바늘잎이 한 곳에서 2개씩 나오지만 리기다소나무는 3개, 잣이 열리는 잣나무는 5개씩 잎이 나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국사의 창건 배경

불국사가 창건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라 경덕왕 때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설과 두 번째는 법흥왕의 어머니인 영제부인에 의해서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라 눌지왕 시대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설화가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대성에 관한 설화입니다. 지금부터 김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의 한 마을에 김대성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절에 시주를 하면 복을 만 배로 얻는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재산인 밭을 절에다가 바치고 그 후 얼마 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생에 대한 보답으로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김대성은 지금의 자신을 낳아 준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대성이 완공하지 못한 채 죽자 나라에서 맡아 절을 약 30년간에 걸쳐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불국사의 가람배치

초기 불국사의 가람구조는 크게 다섯 구역 즉,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과 지장전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불국사의 가람배치는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세 영역에 저마다 독립적인 전각이 배치되어 세분의 다른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이 있고 무설전 그리고 비로전과 관음전, 나한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보 및 보물

불국사에는 국보 7점과 보물 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보는 다보탑(국보 제20호), 석가탑(국보 제21호), 연화교·칠보교(국보 제22호), 청운교·백운교(국보 제23호),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제126호)입니다. 보물은 사리탑(보물 제61호), 석조(보물 제1523호), 대웅전(보물 제1744호), 가구식 석축(보물 제1745호),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보물 제1797호) 삼장보살도(보물 제1933호)입니다.

석가탑

절에는 왜 탑을 세울까요? 원래 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가여래는 현세 불. 즉, 현재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부처님이고 다보여래는 석가 이전의 과거 불을 의미 합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곳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불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국보 21호인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탑의 모습으로 항상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탑 이름도 [석가모니상주설법탑]이지요.
1960년대 중반 어느 한 무리의 도굴꾼들이 한밤중 석가탑 속의 유물을 훔치려고 시도를 하다 그만 새벽이 되어 그대로 도망을 가 버렸는데 이를 발견한 스님의 신고로 곧 넘어질 것 같은 탑을 1966년 10월 해체 하였더

니 2층 몸돌(몸체부)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 되었답니다. 사리함, 사리병, 각종 사리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비단에 곱게 싸여져 발견되었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 법륜사에서 발견된 목판 인쇄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 졌으나 그보다 약 30년 앞선다고 밝혀져 자랑스러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보탑

10원짜리 동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다보탑이죠. 그만큼 소중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랍니다. 다보탑은 국보 제20호이며 사각형 기단의 사면에 각각 10단의 돌계단을 놓고 기단 모서리에는 훌륭한 솜씨로 조각된 돌사자를 놓았던 것으로 추측되나, 일제강점기에 세 개는 사라지고 현재는 얼굴이 깨어진 한 마리만 서쪽면 중앙에 1개만이 남아있습니다. (돌)사자는 불교에서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1층 탑신은 중앙에 정방형 찰주석과 ㄱ자형 단면을 가진 우주(또는 모서리기둥)을 놓은 후 위쪽에는 첨차모양을 2중으로 새기고 그 위에 사각형 옥개석(지붕돌)을 올려놓았는데 처마 끝 윗면 모서리를 살짝 들어올라 가도록 하여 미묘하고 경쾌한 멋을 느끼게 합니다. 2층 탑신부 밑에는 사각난간을 배치하여 그 안쪽으로 8개의 대쪽 모양의 다리를 세워 그 위에 8각형의 판석을 올렸습니다. 3층은 팔각형의 판석 위에 난간을 두르고 연꽃모양이 옥개석을 올리고 그 위에 4층의 탑신부와 8각형으로 된 옥개석을 올린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보탑의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 및 독특한 구조와 표현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단단한 화강암을 이용해 목조건축처럼 만든 석공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시면서 옆에서 다보여래가 듣고 “그래 맞다”하고 증명하는 모습이라서 다보탑은 [다보여래상주증명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부처님이 이곳에서 마주보며 만나고 계시는 모습이랍니다.
그러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보이는 대웅전 회랑에서 탑 그림 그리기를 해봅시다.

나무 이야기(2)

목련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아는 목련은 중국에서 건너온 백목련이고 한국 목련은 제주지방의 자생종인데 일명 고부시 목련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자목련, 자색목련, 태산목, 일본목련, 산목련 등이 우리가 흔히 아는 목련의 종류입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목련은 백목련보다 꽃도 더 크고 향기도 진하며 백목련보다 꽃이 보름쯤 먼저 핍니다. 산목련은 흔히 깊은 산 속에 자라고 백목련, 자목련 등은 정원에 흔히 심어 가꿉니다.

나무 이야기(3)

산수유, 생강나무 이야기

봄을 알리는 꽃의 대표주자인 산수유가 나한전 앞에서 여러분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멀리서 보면 개나리처럼 샛노란 꽃들이 군락을 이뤄 따뜻하고 화사한 봄의 정취를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산수유나무는 산, 들, 마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으며 줄기 껍질이 여러 겹으로 붙어있어 거칩니다. 꽃은 불꽃이 터지는 것처럼 활짝 펼친 모양으로 꽃자루가 길고 그 끝에 봉오리가 맺혀있습니다.
산수유 꽃은 생강나무 꽃과 비슷합니다. 생강나무는 새로 잘라 낸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나므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산지의 계곡이나 숲 속의 냇가에서 주로 자랍니다. 나무껍질은 회색을 띤 갈색이며 매끄럽습니다. 꽃은 3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노란 색의 작은 꽃들이 둥글게 여러 개 뭉쳐진 모양으로 달립니다.

대웅전

불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법화경≫이란 불교의 경전에서 석가모니를 큰 영웅인 대웅으로 지칭한 것에서 유래 되었으며 그만큼 석가모니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분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를 주불로 모시는 대웅전은 영조 41년(1765)에 중창된 것으로 기단부 및 초석 등은 신라시대의 것이고, 상부건물은 18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구조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내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목조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람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수미단을 세우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이 협시(불교에서 본존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하였고 다시 그 좌우에는 흙으로 빚은 가섭과 아난의 두 제사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고 할 때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고, 그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한 뒤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 후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정문을 바로 출입하는 것은 불경을 의미하므로 탐방객은 존경을 표하는 뜻에서 정면으로 출입하지 않고 회랑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비로전

비로전은 비로자나부처님이 모셔진 곳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빛을 상징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이란 어원은 바이로차나(vairocana) 또는 비로차나(virocana) 라는 산스크리트 말을 한자음으로 음역하여 비로자나 또는 비로사나라 부르는데 이 뜻은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뜻이랍니다.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은 국보 26호로 극락전의 아미타여래좌상과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의 하나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수인법은 '지권인'으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것으로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를 표시하고, 왼손은 인간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으로써 인간과 부처는 둘이 아니며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심오한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 불국사 비

로전에 있는 비로자나불은 좌우의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곧추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쥔 형식이 특징입니다. 대좌와 광배가 없어지고 불신만 남아있으며 얼굴은 풍만하나 근엄한 인상이 강하며 목에는 삼도를 나타내어 위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주름은 우견편단(오른쪽 어깨는 벗고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침)형식으로 얇게 밀착되어 몸의 굴곡이 드러나도록 표현되었습니다. 8세기부터 나타났지만 9세기에 크게 유행하던 것입니다.

극락전

극락세계란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낙원을 뜻하는 말로서 이곳을 다스리는 아미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극락전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주불전이 될 때에는 무량수전이라고 하며 주불전이 아닐 경우 미타전 또는 아미타전이라고 합니다. 극락전에 안치되어 있는 아미타부처님은 많은 부처들 중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를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만든 불상으로 국보 27호입니다.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남무)란 우리말이 아니라 옛날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를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그 좌우에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동반하며, 이 두보살로 하여금 중생들을 돕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미타여래의 모습은 건장한 남성적인 체구를 연상시킵니다. 또한 옷 주름은 어깨나 팔을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유연한 편이지만, 가슴의 옷깃안쪽에서 밖으로 늘어지게 한 옷 접힘 또는 팔에서 내려오는 지그재그형의 옷자락, 그리고 배와 다리의 옷 주름 선들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8세기에 제작된 석굴암 본존불의 특징과는 다른 9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답니다. 양손은 각각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아미타구품인 가운데 하품중생인을 맺었지만 좌우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뀐 점이 특징입니다.

다람쥐와 청서

등산을 할 때 자주 보이는 같은 듯 다른 귀여운 동물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는 도토리를 좋아하고 나무 타기를 매우 잘 탑니다. 바로 '다람쥐와 청서'입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 다람쥐는 등에 갈색과 흰색 줄무늬를 띄고 있고, 청서는 회색빛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람쥐와 청서는 둘 다 높은 곳을 좋아하긴 하지만 생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람쥐는 땅속에 굴을 파서 생활을 하며 청서는 나무 위에 집을 지어 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는 반면에 청서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다람쥐와 청서 둘 다 우리나라의 고유종입니다. 두 동물 다 우리가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동물입니다. 앞으로는 동물들의 소중한 먹이인 도토리도 절대 줍지 않기로 해요.

나무 이야기(3)

벚나무

벚나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잎과 꽃이 피는 시기와 꽃차례의 모양으로

구별하며 대표적인 종으로 벚나무 또는 왕벚나무, 산벚나무, 겹벚나무 등입니다.

①왕벚나무 : 빨강머리 앤 다들 아시죠? 빨강머리 앤 동화에 보면 초록색 지붕 집 옆에는 빨강머리 앤이 눈의 여왕이라고 이름 붙인 꽃나무가 있는데, 그 꽃나무가 바로 왕벚나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자랑하는 그 꽃나무는 여러 종류의 벚나무 중에서 특히 꽃이 탐스러운 왕벚나무이며 이나무의 자생지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제주도 한라산 기슭이라는 사실입니다. 왕벚나무 자생지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②산벚나무 :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판의 경판 목재로 쓰여질 만큼 재질이 우수한 나무입니다.

③겹벚나무 : 꽃이 겹겹으로 피어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반 다른 벚나무에 비해 늦게 피어, 다른 벚꽃이 다 진 4월 말에서 5월 초에 20일 정도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랍니다. 불국사 주차장 위편으로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 씨앗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씨앗은 어떻게 좋은 땅을 골라 새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씨앗은 바람을 이용하거나, 동물의 털을 이용하거나 우주선처럼 팡팡 터져서 좋은 땅을 찾아 여행을 떠난답니다. 그 중 단풍나무의 씨앗의 이동은 프로펠러처럼 생긴 날개의 아랫부분에 씨가 들어있어서 바람이 불면 열매가 2장의 날개로 빙글빙글 돌면서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열매가 바람에 날려 날아가면서 그 안에 있던 씨도 멀리 퍼지게 됩니다. 단풍나무 씨앗을 직접 만들어서 날려볼까요?

멧돼지와 사냥꾼 놀이

멧돼지와 사냥꾼을 한 명씩 뽑습니다. 나머지는 숲이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원을 만들어 손을 잡고 서서 멧돼지가 원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주고 사냥꾼에게는 멧돼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숲이 야생동물들에게 소중한 은신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숲이 파괴되면 야생동물이 갈 데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숲의 소중함에 대해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생태밧줄놀이

밧줄로 둥굴게 원을 만들어서 밧줄 바깥으로 서 봅시다. 숲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든 한 가지씩 말을 하면서 밧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밧줄 안이 숲을 이루는 생태계를 의미하는 거죠. 숲 생태계는 햇빛이나 흙, 물, 나무, 곤충 등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밧줄 안으로 들어갈 때 숲 속에 하나의 생명이 되어 봅니다. 하나 둘 모여 자연환경을

이루었습니다. 숲 생태계가 정말 튼튼한지 밧줄을 잡고 뒤로 기대어 봅니다. 생태계는 우리를 잘 받쳐주고 울타리처럼 보호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대어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밧줄은 무너집니다. 생태계는 다양한 동물, 식물이 필요하고 물과 공기 같은 자연환경이 튼튼해야 건강한 생태계가 됩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렇게 불국사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오래된 그림, 오래된 각에 대한 향수는 이것이 문화유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하고 푸근한 분위기, 마음의 적요함, 우리 선조의 지혜, 옛 조상의 흔적 등에 감동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에 덧붙여 저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자연은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 아름답다.' 나름의 생존전략으로 자연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자연자원과 그러한 자연과 동화되어 훌륭한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소중한 경험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여러분을 뵙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가탑(대웅전 위치)



다보탑(대웅전 위치)



금동비로자나불좌상(비로전 위치)



금동아미타여래좌상(극락전 위치)